

2021 지구촌교회

가정예배순서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전파!
Sharing Jesus!



VOL.8
2021 09-10

언약의 징표, 할례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복음성가

지495장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1-14

- 0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
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 0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 0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0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 0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
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 0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 0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 0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 0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
손도 대대로 지키라
-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
킬 내 언약이니라
-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 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
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1. 하나님은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 번 약속을 확인하시며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언약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은 약속의 장소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아브라함의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응답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열왕이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후손들이며 그 약속에는 언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지켜야 할 언약의 증표를 제시하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태어나서 팔일 만에 포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징이 되었고 이방인들과 구별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기억할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약속의 상징인 구약의 할례와 믿음을 고백하는 신약의 침례(세례)의 연관성을 설명해보세요.

천사들을 환대한 아브라함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복음성가

지 142장

모든 상황 속에서

- 01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
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 0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 03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
지 마시옵고
- 0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 0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
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 0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
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 07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
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 08 아브라함이 영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 0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 10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
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 11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
는지라
- 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
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
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 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 15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
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1.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각에, 아브라함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두 천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예를 다하여 영접하면서, 정성껏 준비한 음식과 물로 나무그늘 아래에서 그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하나님은 앞선 창세기 17장 21절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하십니다. 늙어서 잉태할 수 없는 노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앞선 17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엔 그의 아내 사라가 동일한 웃음으로 자신의 믿음 없음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남편을 대하실 때와 마찬가지로 너그러움과 인내로 그녀의 불신앙에 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14절)

2. 그때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동일한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눅 1:37) 처녀인 자신의 몸에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에 당황해하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옛적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또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신앙에 빠져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참으시며, 동일한 말씀으로 권면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주어진 것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절망적인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느새 내 안에 동지를 둔 불신앙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동일한 음성을 듣고, 변화되어야 할 믿음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복음성가

지 121장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16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
 러 함께 나가니라 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
 기겠느냐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
 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
 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
 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
 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 주
 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오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
 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
 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
 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
 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
 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
 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
 리라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
 으로 돌아갔더라



1.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나라의 조상이 되고,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되게 하실 약속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녀와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와의 도를 지키며 경건하게 살도록 잘 인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달리 소돔과 고모라는 날이 갈수록 악행이 심해졌습니다. 죄악의 도시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자 하나님께서는 죄악상을 알아보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이 내려가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닿으려고 했던 바벨탑의 교만을 떠올리게 합니다(창 11:5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의 심판은 반복되는 죄악의 역사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80년대의 미국 사회를 바라보며 “만일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과 고모라에게 사과하셔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한 도시를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지, 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지 두려운 마음으로 살펴야 합니다.

2.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 진노의 심판을 거두시도록 여호와 앞에 서서 가까이 나아가 간절한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 기도하였고, 죄의 도성 중에도 의인이 있다면 심판을 거두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인한 후에 자기 거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그의 중보기도는 이 소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된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축복의 통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기도 드리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또한 세상의 어떤 모습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나요?

소돔의 죄악



찬송가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복음성가

지 43장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1-11

- 01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 02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 03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 04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 0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 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 06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 07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 08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 09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 10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 11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1. 두 명의 천사가 소돔의 죄악을 살펴보기 위해서 소돔 땅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천사들을 낫선 나그네로 알고 정중하게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이 천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두 천사는 완전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에 롯을 비롯한 소돔 사람들 눈에는 소돔을 지나는 나그네로 보였습니다. 롯은 두 천사를 알아보고 선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두 명의 나그네가 소돔 거리에 머물 경우 여러 위험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았기에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돌보았던 것입니다. 롯은 비록 죄악이 가득한 소돔에 살았지만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했습니다.

2. 그에 반해 소돔 사람들은 두 명의 나그네가 롯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그들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롯은 나그네를 보고 그들을 보호하려 했지만, 소돔 사람들은 나그네를 보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고 탐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쾌락을 누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나그네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 없었습니다. 타인을 통해서 나의 필요와 나의 쾌락을 채우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죄악은 말씀을 거부하고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소돔의 죄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는 타인을 보호하고 섬기는 사람인가요? 타인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려는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인가요?
3. 나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돌보거나 섬겼던 경험이 있나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영혼



복음성가

지 442장
내 갈급함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1-15

- 01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 0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 0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 04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 0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 0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 07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 0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 09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 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경로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수가성의 한 여인을 의도적으로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아무도 보지 않는 정오에 우물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여인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났지만 그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2.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요청에 여인은 매우 경계하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히渴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을 마시고 싶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갈증을 이해하셨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아픔과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마리아의 우물을 찾아가신 것처럼 복음을 전해주어야 할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감사의 노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복음성가

지 14장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0:1-5

- 0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 0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 0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 0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 05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1. 시편 100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시인의 권유는 환경과 상황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때로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는 어두운 밤 한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외침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계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이, 고통과 아픔으로 얼룩진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도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까닭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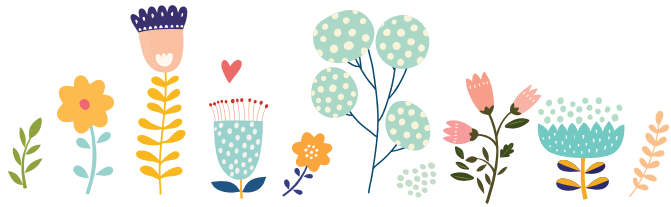
2.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근거로 찬양과 감사를 계속해서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며 대대손손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돈도, 높은 지위도, 그 어떤 세상의 것들도 우리의 안전을 결코 담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 안에 새겨진 그의 자녀들을 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깨닫는 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인생의 불안과 공포가 엄습할 때 나는 무엇을 의지하나요? 십자가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신뢰할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복음성가

지 442장
내 갈급함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16-30

- 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 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 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 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25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 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 28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 29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 30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1.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선물로 받았는데 예수님과 깊은 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사생활과 도덕적인 문제를 간파하셔서 남편을 불러오라 하셨는데 이전에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이도 남편이 아니었던 여인은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음을 알았던 것이고, 비로소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의 전부를 알고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2. 여인은 유대 사람들이 배척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인지, 그리스 산의 성전인지를 놓고 갈등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거하시신 새 성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참다운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과 그리스도 중심적 예배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많지만 우리 모두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나누어보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야기해봅시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복음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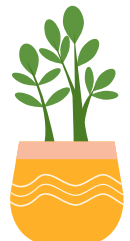
지180장
세상 흔들리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46-54

- 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 47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 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 4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 49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 50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 51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 52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 지라
- 53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 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 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1.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을 때 아들이 큰 병에 걸린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왕의 신하라는 자존심도 버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는 표적을 구하는 왕의 신하를 향한 말씀이며 나아가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없으면서 예수님의 통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잘못된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왕의 신하는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아들이 살아 있다고 하시며 가라고 하십니다. 아들이 정말 치료되었는지 그냥 살아있기만 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야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들에게 떠났고 길은 가던 중 자신을 향해 올라오는 종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치료된 시간을 묻는데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음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뿌리내리고 있나요? 아니면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나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찬송가

270장
변참는 주님의 사랑과



복음성가

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4-15

-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 ‘요한이 잡혔다’의 의미는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음을 의미합니다. 침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과,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며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던 침례 요한이 잡혔고, 이제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또한 이는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는 침례 요한의 말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닌 이 땅에서도 경험되는 나라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주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본 적은 언제인가요?
꿈꾸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가정 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1 성경의 역사

가정예배는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모든 가족들이 준수해야 할 가정의 의무입니다. 가정예배는 하나님의 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은 아니지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임된 특성입니다. 가정예배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부터 존재했고 노아의 가족(창8:20), 아브라함의 가족(창12:7), 이삭의 가족(창26:25), 야곱의 가족(창35:2), 욥의 가족(욥1:5), 신명기 6장의 쉼마명령, 여호수아의 고백(수24:15)에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가정 예배의 자취는 이어집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던 고넬료의 가정(행10:2, 24-25, 31),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행18:26, 롬16:5)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입니다.

2 초대교회 시대의 가정예배

1세기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아침과 저녁으로 한 자리에 모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대 풍습에 관하여 연구했던 한

학자는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빈둥거리거나 저속한 오락이나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거나 이교도들의 불경스런 노래를 부르면서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대신 이성적이며 유익한 활동을 즐기면서 몸과 마음을 재충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 지식을 넓히고 하나님을 찬양 하는 가운데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러한 일은 개인적으로 기분을 전환 하는 방편이자 가족끼리 즐기는 일종의 레크리에이션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심신이 재충전 된 그들은 새로운 열정을 품고 각자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여가 활동에 만족하였으며 식욕을 채움으로 피로를 풀기 보다는 이런 일로써 고단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물레 앞에 앉은 젊은 아낙네들과 집안 일을 하는 여인들은 늘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일하였습니다. 제롬은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들에서 풀 베는 촌부가 찬송을 읊조리고 포도원 일꾼이 다윗의 시편을 노래하는 것을 흔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오전이나 식사할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성호를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온 가족이 아침 일찍 한 자리에 모여 구약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며, 간밤에 지켜


주셔서 모두가 아침에 건강하고 맑은 정신으로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온갖 위험과 유혹에서 자신들을 보호해 주시며, 각자 모든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맡은 일을 귀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저녁에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함께 모여 아침에 드렸던 것과 똑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차이점이라곤 아침보다 예배 시간이 좀 길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습 외에도 그들은 한밤중에 모여 기도하며 찬송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케이브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 이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했던 초대 교회 당시 성도들이 낮에 모이지 않고 밤에 모임을 가졌던 것에서 비롯된 풍습이라고 합니다.”(라이먼 콜먼의 [그리스도 교회의 고대 풍습 중])

3 종교개혁 시대의 가정예배

종교개혁 시대에도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의 행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대부분 가정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루터는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이었으며 독일을 비롯한 스위스, 프랑스, 네덜란드 교회에서도 가정예배가 확산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가정예배가 가장 활성화되었던 나라는 단연 스코틀랜드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는 1647년에 가정예배 규칙서를 발간하였는데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의 통상적인 의무는 한자리에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할 때 먼저 기도하고 찬송하며 교회와 국가와 가족을 위하여 간구한다.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고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문답식 공부를 한다. 또한 온 가족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다 함께 대화를 나누며 가장은 가족 중에서 권면할 자를 권면하고 훈계해야 할 자를 훈계한다. 가장은 예배에 불참하는 식구가 없도록 감독하며 예배 순서를 인도할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리고 목사는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나태한 신자들을 지도하고 나약한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한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발휘하려면 당연히 기도해야 하는 줄로 생각했다. 영적으로 미숙하고 나약한 신자들은 기도하는 습관을 익히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든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영을 분발시키기를 게을리 해선 안 된다. 기도의 영은 우리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기도하게 하며, 가족을 위하여 중보하게 해준다. 우리는 무신론자들과 경건치 못한 자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생업이나 그 외의 사유 때문에 가정 예배를 뒤로 미루지 말고 성실하게 드려야 한다. 최근에 하나님의 우리나라에 베풀어주신 공훈과 징계에 대하여 감사하자. 이로 인하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뿐 아니라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포하기에 이르렀으니 정말로 감사하다.”



가정예배는 복의 근원입니다
 (저자: 제임스 W. 알렉산더 미션월드의 내용을 요약하여 가정예배의 축복을 연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부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우리 가정의 주인되시는 하나님!
사랑스런 아내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를 돌아봅니다.
가정을 위해 날마다 수고하는 아내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우리 가정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다.
나는 당신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만남입니다.
나는 당신을 늘 신뢰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잠언 3: 3-6 (쉬운성경)
“사랑하는 자녀이름 아(아), 자녀이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자녀이름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
하기를 (아빠, 엄마)가 간구하노라” [요한삼서 1장 2절]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이름 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자녀이름 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녀이름)를 보호하여 주시고,
순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사랑의 주님!
항상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힘쓰시는 부모님에게 주님의 능력과 기쁨을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부모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은 부모님의 뜻
에 합하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은혜의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